

25분만에 오일펜스 3점 설치...50분만에 방제 완료

기름 확산 방지, 초기 대응에 달려있다

■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방제훈련 가보니

“알립니다. 여수시 만흥동 여수항 인근 5km 떨어진 해상에서 적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파나마 선박의 원유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신속히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원유 22만3천kl를 싣고 파나마에서 여수항으로 진입하던 11만2천여급 제임스토파즈호가 19일 오후 2시께 적군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원유탱크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원유 유출’ 사고 소식은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전파됐다. 10여분도 안돼 여수해경 방제선 10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사·GS칼텍스 소속 선박 5척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그러나 원유 900kl는 바다에 유출된 상황. 게다가 사고 현장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 양식장 25ha와 만장리해수욕장 등이 인접해 있어 신속한 방제가 필요했다.

사고 발생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 150t급 방제13호가 사고 선박에서 300m 떨어진 곳에 1차 오일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1차 오일펜스에 이어 해양공단 소속 212t급 208환호호가 사고 선박 주위로 2차 오일펜스를 동시에 설치했으며, GS칼텍스 소속 10t급 그린2호 등도 3차 오일펜스로 원유 유출 확산을 막기 시작했다. 3차 오일펜스 설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5분이었다.

오일펜스를 먼저 설치한 방제13호와 방제15호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유(油)회수기를 이용해 펜스 안의 원유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펜스 설치를 완료한 다른 방제 선박들도 흡착포와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까지 동원해 방제를 빠르게 진행했다. 155명의 인력과 15척의 방제선박, 80kg의 흡착포, 유처리제 144l가 동원된 방제 작업은 50분만에 완료됐다.

물론 이상향은 실재가 아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유지관리단기(UPG) 훈련’의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훈련이다. 지난해 태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상황처리나 오일펜스 설치 및 기름 회수 등 방제대비 역량을 점검한 것이다.

여수해역은 전국 바다중에서도 기름유출사고가 잦은 곳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내 수역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6년 29건(33.7kl), 2007년 37건(50.5kl), 올해 8월 현재 22건(258.6kl)에 달했다.

훈련을 통해 일부 문제점도 노출됐다. 훈련 도중 일반 선박 등이 훈련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바람에 통신 폭주가 일어나 주파수를 바꾸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같은 경우가 실제 방제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면 방제선끼리 협조체계 등이 무너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수해경 해양오염방제과 김광섭(46) 주임은 “이번 훈련은 유출 3시간 내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한 해양오염 사고를 대비해 빠른 출동과 기관간 협조체계에 대해 점검할 수 있었다”며 “주파수 문제는 선박 조항 등과 상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19일 오후 여수해경, 해양공단, GS칼텍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해양오염 방제 유지훈련에서 참가자들이 호스를 이용해 유(油) 처리제를 뿌리고 있다. /위직기자 jwji@kwangju.co.kr

바다를 대상으로 적조 생물을 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황토 살포를 고급적 억제하면서 6천407대의 산소 공급기, 순환 펌프, 역화산소저장시설 등의 적조방제장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산방 방류와 함께 양식장 주변 수심 10m이하에서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 적조생물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저층수 펌핑 방제시설’을 여수 해역에 설치, 현장적인 대응 및 효과조사를 하고 있다.

/홍형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가 보조금 30억 편취 업체 대표 등 2명 영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역수사팀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완도 A 업체 대표 L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친척 K씨에게 공작 건설을 맡기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이중 계약하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규기자 lsh@kwangju.co.kr

학교 폭력서클 자진신고

전남 14개, 광주는 없어

학교 폭력서클이 전남지역에만 10여 개에 달한 반면, 광주지역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전남 시·군 학교 안팎의 학생지도가 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정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동안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는 14개의 폭력서클에 소속된 학생 200여명이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현재 추가로 자진 신고하고 있는 학생들과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지역은 16~17개의 폭력서클에 소속된 학생은 25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에서도 12건(35명)의 학교폭력이 신고됐으나, 경찰 조사결과 아직까지 조직적인 폭력서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활동하는 서클이 10개였으며, 나머지는 해남·강진·완도 등

서부권에서 활동했다. 전남 서부권 중심지인 목포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서클에 가입한 학생들은 통학버스 등 다른 지역·학교 학생들과 마주치는 곳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시비를 벌이고, 일부는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가해 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 학생들을 불입건 조치하고 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들 서클은 10~15명 가량의 학생들이 속해 있으나 일부는 주동자가 소년원에 입감되면서 와해 단계에 있어 폭력성을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학생들은 도시권인 광주 학생들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고 임시 부담도 덜하다 보니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588)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량판형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술 마신다 꾸짖는 동거녀 상습 폭행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의해 구속.

○20일 나주경찰청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2006년 대전시 모 기도원 지하실에서 동거녀 B씨를 때리는 등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23범인 A씨는 술을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를 집어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A씨가 동거녀 B씨의 재산을 노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한 만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화재 진압 소방관 3명 사망

서울 나이트클럽 불

20일 새벽 5시25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조끼현(45) 소방장 등 소방관 3명이 건물터미에 깔려 숨졌다.

숨진 소방관은 조 소방장과 김규재(41) 소방장, 변재우(34) 소방사로 모두 서울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소속이다.

이들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5시30분경 현장에 도착해 먼저 건물 안에 들어가 인명 피해

를 살피며 화재를 진압하다가 건물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으면서 번을 당했다.

나이트클럽 2층 무대 위 천장과 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복층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은 새벽 5시41분으로 이들 3명은 모두 무대 인근에서 불을 끄러다가 무너져 내린 건물터미에 깔린 채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불길은 3층 건물 가운데 2층과 3층, 1천여㎡를 태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잡혔으며 화재 당시 불이 난 나이트클럽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연남뉴스

승용차, 승강장 충돌... 보성서 3명 숨져

20일 오전 6시30분경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에서 장모(31·광주시 북구 용봉동)씨가 운전하던 스펙트라 승용차가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씨와 유모(여·25·경기도 안산시), 이모(여·24·보성군 겸백면)씨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이모(34·남구 주월동)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보성군 화천면에서 보성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커브길에서 방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운전자 유모의 음주여부도 수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지평형기자 light64@

양식 치어 방류해 적조 막는다

전남도 다양한 방제대책 마련

전남도는 최근 폭염으로 고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적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존의 황토 살포 이외에도 양식어류 방류, 환경친화적 저층수 활용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해사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어류를 방류하는’ 새로운 방제대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5억 원의 방류 보상 예산을 확보했으며, 여수와 완도 등지의 10개 어가에서 양식하는 조피볼락 등 단년생 치어 100만 마리를 방류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자연 황토를 살포해 적조생물을 흡착,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침전식 구제 방법을 사용해온 전남도가 새로운 방제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귀중한 자연인 황토를 계속해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다, 드넓은

/홍형기자 redplane@kwangju.co.kr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알서가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위치: 광주지방법원 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경매채테크/투자수익창출/성공적 파트너 권리분석, 임대유치권내려서 된 성립여부, 내담자에게상부석 애프터케어,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취안 등 최신행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주)옥션코리아 대표 1:1 투로상담

▶ 근린시설				▶ 원룸/모텔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유성동/주유소	372/96	1653200원	1195800원	송정동/방16/4층	110/190	494777원	391300원
영광/목욕탕/수영장	134/768	2981000원	1987000원	신원동/방5/8층	56/92	2945804원	1945000원
신안동/원로사부실	50/234	5957000원	1989000원	무림동/방4/8층	56/104	2943000원	1970000원
월산동/식당/역할	30/40	2920000원	1923000원	계림동/방15/3층	65/119	3981000원	2193000원
신안/고물수집장	400/81	4923000원	2986000원	신안동/모텔/8층	106/425	12983000원	5874000원
나주산동/의료요양실	975/1188	35970000원	16910000원	화산동/모텔/8층	505/470	99492000원	48940000원
해장동/약원/교과재판	169/768	14914800원	7982000원	해안동/모텔/8층	242/778	28920000원	12945000원
화산동/식당/요양실	549/176	7998100원	39130000원	화산동/모텔/8층	617/846	19940000원	89700000원
영동동/연립주택	136/357	10938000원	7927000원	순천항동/모텔/7층	86/409	16920000원	89220000원
순천항동/아파트/상가	288/120	89720000원	49200000원	화산동/모텔/8층	152/427	159820000원	59970000원

▶ 근린주택				▶ 토지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지목	면적	최저가
유성동/3층 근린주택	61/133	3989000원	19730000원	송정동/농지	담	608	2818000원
송정동/4층 원로사부실	60/186	14947000원	89270000원	남평동/농지	담	450	4020000원
동산동/3층 원로사부실	57/98	29180000원	19210000원	상정동/농지	담	641	2756000원
일곡동/4층 식당/원룸	125/257	99470000원	59430000원	북구동/농지	전	448	2813000원
나주(신안동) 식당/요양실	158/96	39496000원	195000000원	나주사대/가동	과수원	3236	29460000원
화산산동/리 식당/사무실	783/157	798613800원	297200000원	나주사대/가동	과수원	1562	29470000원

▶ 아파트			
소재지	면적	면적/층	감평가
송정동/온세계	33/7	19290000원	9039000원
진월동/현대신도시	24/7	8000000원	5600000원
동산동/행지	27/1	5000000원	3500000원
향남동/부인	34/11	19350000원	9450000원
백운동/대우스카이	26/4	6800000원	4760000원
운암동/미라노	33/3	8600000원	6020000원
화정동/주공	13/4	5000000원	3500000원
운암동/나산	51/13	19800000원	19330000원
오지동/주공	15/5	3400000원	23800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8-1140, 0210 911-602-2532 (동주동점 신촌점, 대인동 소형점/나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평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과 엄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018-811-3424, 011-825-0510

수원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이아파트·우미아파트 옆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아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점포점포앞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이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료의 018-811-3424, 011-825-0510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위치: 화정동 세무소아래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담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 서구 중앙동/대지 210㎡/4F/원룸/보증금 8800만 원/월4400만원

· 서구 금호동/대지 230㎡/3F/인입/보증금 3천/월 2000만원

· 광산구 연산동/전/1354㎡/매가9900만원

· 광산구 연산동/전/3303㎡/2억5천

· 광산구 고흥동/전/925㎡/7천만원

· 광산구 우산동/담/3000㎡/5억5천

· 서구 세하동/도로점전/2642㎡/5억6천만원

· 서구 쌍촌동/대지/600㎡/4억

· 서구 화정동/대지 350㎡/건평1320㎡/17억/보증금 4억/월9000만원

· 서구 벽진동/대지 221㎡/단층건평66㎡/매가1억

· 서구 쌍촌동/대지 160㎡/구한옥1동/매가7천

· 서구 쌍촌동/대지 350㎡/2F/건평165㎡/매가2억6천5백만원

· 서구 쌍촌동/대지 859㎡/매가4억6천800만원

· 서구 매월동/대지 1123㎡/건평198㎡/6억5천

· 서구 세하동/대지 337㎡/구한옥1동/매가1억2천

· 서구 세하동/대지 480㎡/구건물1동/매가1억7천만원

수원 부동산 컨설팅

☎ H·P : 010-5714-1114 (해남공단 3번로 / 수원지구 앞)

▶ 산월동 자연녹지

- 전지공고 - 보습병원 사이 약 6,000㎡
- 주유소, 화물차고지, 물류창고/분할가

▶ 일곡지구 고급주택가 부지

- 롯데A, 입산초교 서측 약 380㎡
-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사 불요

▶ 단독주택 매매

- 은암동 중앙고교~문화예술회관사이, 대지 약200㎡ 2층주택 / 1층 주인집 2층출도 출입 / 2가구 임대중 정원수, 연못 관리상대최상 / 최신인테리어 개보수 완료

▶ 담양 관리지역 입야

- 창평 23,000㎡ / 폭9m진입로확보
- 철단, 밑곡에서 10분 거리
- 공장, 폐차장, 물류창고, 복지시설가능

▶ 원룸매도 (수익률 약15%)

- 도산역세권 / 원룸17실, 쓰리룸1실
- 매매가14억3천만원 / 실투자12억3천만원
- 보증금2억, 월세280만원

▶ 수원지구

- 초대형학원 최고인주 확보
- 아파트 분양권 로얄층 다수 확보 (현진, 코오롱, 우미, LG자이...)

▶ 공장 매매 / 임대

- 하남, 소촌, 평동공단 매매 임대물건 수시 접수 & 처리중

▶ 기타

-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할/매수자 대기중